



성수기 불구 하락세 여전

맥문동, 햇것 출하 본격화 되면서 시세급락

봄철 성수기임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한 한약상이 골목들은 여전히 찬기운이 감돌아 썰렁하기만 하다. 매기가 없어 바닥세인 국산한약재 시세도 그나마 주저 앉았다.

여름철 식은땀 흘리는데 보약재로 인기가 높은 황기 소비량이 7.8월 다소 늘 것으로 기대되나 시세 회복여부는 아직 미지수.

황기 1년전 소황기는 통자로 근당(6백g기준) 2천5백원~3천2백원선, 절황기는 근당 4천원 선으로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3년근 중황기도 근당 1만2천~1만5천원 선, 6년근 대황기는 2만~2만5천원 선으로 바닥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찾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다. 7.8월 다소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 시세는 당분간 약보합세 이를 전망이다.

맥문동 지난달 근당(6백g기준) 1만1천원선에서 거래되던 거심 맥문동(청양산)이 7천5백원 선으로 곧

두박질. 7천8백원 선이던 막막이 5천원 선으로 폭락했다. 근당 1만 6.7천원 선(거심)까지 거래되던 지난 3월 시세에 비하면 무려 7.8천원 폭이나 값이 떨어진 것. 이처럼 맥문동 시세가 급락한 것은 소비부진으로 매기가 없자 햇것 출하 시기를 의식한 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을 싼 값에 풀고 있기 때문이라고.

작약 지방 약재시장에서 거래되는 백작약 시세는 근당(6백g기준) 의성산이 3천5백~5천원 선 까지 품질에 따라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호남산은 2천8백원~3천2백원 선이다. 지난해 작약농사가 흉작인데다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큰 시세하락 기미는 아직 없다.

두충 지난달 근당(6백g기준) 3천5백원~6천원 선 까지 거래되던 두충시세가 지방 도매시장에서 근당 3천~5천원 선으로 1천원 안팎

내림세다. 이제 곧 햇것 출하시기를 앞두고 있어 두충 값 하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황 보합세다. 국산 생건지황 근당(6백g 기준)도매시세는 토지황이 9천원 선, 개량종인 '지황1호'는 근당 6천원 선에 지방 도매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이 부족, 물량도 귀한 편이다. 다른 약재에 비해 시세폭락 현상은 없고 그런대로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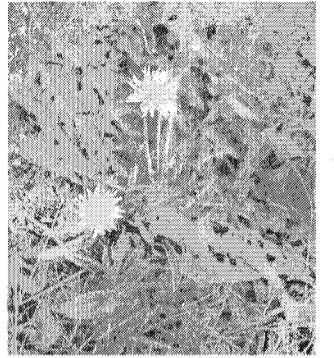
당귀 지방 도매시장 등에서 짝으로 거래되는 토당귀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2천3백원(절), 3천원(통) 선으로 지난달 보다 더 떨어졌다. 일당귀는 근당 3천5백원 선으로 보합세다.

이처럼 당귀시세가 바닥세를 형성하자 서울 경동약령시장에서는 일부 상인들끼리 담합, 당귀시세를 5백원 정도 올리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후문. 그러나 지방 산지에서 절당귀가 근당

이달 출하품목/포공영

채취량 연 2, 3만근 추정 간염, 기관지염 등에 효과

민들레(한약명.포공영)는 이른 봄에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 키 작은 풀로서 잎은 뿌리에서만 자라난다.본초학에서 민들레는 간염, 기관지염, 해열, 정혈(정혈)견위 발한 이뇨 등의 효능 효험이 있고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여 일반적인 소염 해독제로도 쓰인다고 하였다. 여하튼 민간 약초로서 간경화증,변비,감기,관절염,폐암 등에도 두루 두루 쓰여왔고 나물감으로 널리 식용해온 식물이다. 민들레는 우리나라 전국 각처의 산야지 양지 초원에 흔히 자생하는 식물로 시중 약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포공영은 자연산을 채취한 것이다. 연간 채취,유통량



은 2~3만근 정도로 추정되며 경북 영천이나 의성 봉화 등지에서 주로 출하가 이뤄진다. 포공영은 한의원이나 한약방 처방전에도 사용되지만 주로 재래 시장등에서 민간요법등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거래되고 있다. 시세는 근당 1천 8백원에서 3천원선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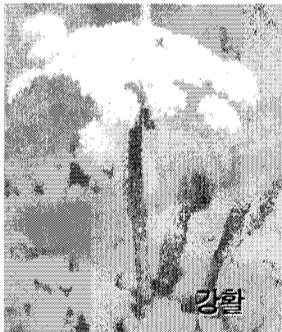
3천원선, 그보다 품질이 떨어진 것은 2천3백원 선 까지 거래되고 있어 경동약령시장 상인들의 '근당 3천5백원 선 고수'가 얼마큼 효과를 거두지는 미지수다.

구기자 구기자 시세가 계속 하락세다. 지방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구기자 근당(6백g기준)시세는 청양산이 8천5백원 선, 진도산이 9천~9천5백원 선으로 지난달 보다 1천원 폭으로 값이 떨어졌다. 소비가 워낙 부진한 때문. 당분간 하락세 계속될 전망이다.

(회)

생약초 이용 나물 무침 만들기



삼지구엽초 봄에 어린 잎과 꽃을 따다가 나물 무침으로 해서 먹으며, 기름에 볶든지 튀김을 하기도 한다.

어린잎일 때는 쓴맛이 별로 없으므로 가볍게 데쳐 찬물에 헹구기만 하면 된다. 데칠 때에는 뜨거운 물에 소금을 조금 넣는다. 신선한 꽃은 마요네즈와 섞어 샐러드로 해서 먹는다.

말린 잎을 살짝 비벼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음양곽차가 되며 생강이나 감초를 넣으면 맛이 좋다. 이 차 마시는는 은근히 약의 효과를 낸다. 삼지구엽초의 생약명은 음양곽이다.

사철쑥 봄에 어린풀을 뜯어다가 나물로 무쳐 먹

는다. 살맛이 있으므로 여러차례 우려낸 다음 양념간을 해야 한다. 쓴맛을 우려낸 후 잘게 썰어 밥과 버무려 쑥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사철쑥을 넣어 만든 시루떡을 인진병이라 하며 이것을 많이 먹으면 여름 내내 더위를 먹지 않는다.

사철쑥의 성장점인 어린 잎을 따서 3배량의 소주에 담가 3개월 이상 숙성시켜 마신다. 이보다는 인진쑥을 삶거나 구운 것에 차조와 누룩을 섞어 빻은 술을 인진주라 하는데, 이 약술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오래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희어질 뿐만 아니라 기를 살리고 노화를 막는다. 또 생잎을 튀김으로 하고 조금씩을 생식해도 좋다.

강활 봄철에 어린 순을 뜯어다가 나물로 무쳐 먹는다. 씹히는 느낌이 좋으나 쓴맛이 강하므로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찬물에 잘 우려내서 씹어보고 쓴 기운이 거의 없어졌으면 갖은 양념으로 무친다. 참기름을 많이 넣고 마늘, 양파, 고추장을 가미하면 풀냄새와 쓴맛을 별로 느끼지 않게 된다. 데치지 않고 생으로 튀김을 하면 쓴맛이 거의 없어진다. 술에 담가 숙성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마시면 풍습성 관절염이나 풍을 예방한다.

백작약 봄에 어린 잎을 따모아서 나물로 무쳐 먹는다. 쓰고 신맛이 있으므로 데쳐서 우려낸 후 먹는

데, 약간 쓰고 신맛이 어우러진 것은 그런대로의 아취를 맛볼 수 있으므로 너무 우려내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뿌리를 잘게 토막내어 3~4배량의 소주에 담가 2개월이상 숙성시킨다음 날마다 공복에 조금씩 마신다. 술맛이 독특해 호감을 갖게되며 위와 간에서 생기는 질병의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술이기도 한다.

구기자나무 구기자의 열매와 잎을 오랫동안 식용하면 허약한 몸이 회복되고 버를 튼튼하게 하며 허약한 몸이 회복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몸을 가볍게 하고 추위와 더위를 타지 않으며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어린잎을 생식하고 녹즙과 녹차의 재료가 된다. 또한 쓰거나 끓은 맛이 없어서 그냥 깨끗이 씻어 조리하면 어떠한 나물 반찬거리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어린잎을 밥이 뜸들 때 넣어 찌서 나물밥으로 먹고 된장국에 넣어 먹는등 갖가지 음식으로 먹으면 이것이 바로 강장제가 된다고 한다.